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95 비전 2000운동 본부는 올해 『비전 2000운동』의 표어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자”로 정했다. 『비전 2000운동』이란 21세기가 되기 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교회 설립일을 7주 앞두고 해마다 50일간 가지는 우리 교회의 이 행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행하며 전도를 위한 기도운동을 결합하여 벌이고 있다.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 창립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 2000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교회 역사에 획을 그을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서 첫 열심을 기억하고 그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재무장하는 일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0월 8일 찬양예배 시에 발대식을 갖고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운동의 행진을 시작할 '95 비전 2000운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95비전 2000운동**

##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자"

1995. 10. 8. - 11. 26. (50일간)



● 기도제목 ●

1.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2. 복음 전할 기회와 환경, 그리고 생명을 주옵소서.
3.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4. 잃은 양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며, 다락방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5.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전(殿)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게 하옵소서.
7.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표어

듣는 사람마다 복음전하자

▶ 행동강령

- 1. 기도하자
- 2. 복음 전하자
- 3. 잃은 양을 찾자

▶ 주제성구 및 찬송

- 주제 성구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 주제 찬송 / 찬송가 257장(듣는 사람마다 복음전하여)

▶ 주요행사 일정

- 10월 1일 / 태신자 카드작성
- 10월 8일 / 발대식, 태신자 카드제출, 1200시간 연속기도회 시작, 현판식
- 10월 22일 - 교구별 노방전도
- 10월 27일 - 청소년 찬양집회
- 10월 29일 - 새가족환영회
- 11월 5일 - 전가족 만남의 주일

- 11월 12일 - 기관별 노방전도
- 11월 19일 - 전교인 전도대행진
- 11월 26일 - 교회설립 4주년 감사예배, 전체 만남의 주일, 승전감사예배 및 새가족 환영회

● '95비전2000운동을 통하여 ●

-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2000년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합시다.
- ⊕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 ⊕ 아직도 전도를 못해보았다면 이번 비전 2000운동을 통해 전도를 경험해 봅시다. 성령님을 힘입을 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 각 기관과 교회학교, 선교회와 전도회, 다락방들은 잃은 양을 찾아나섭시다. 구성원이 배가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 ⊕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기도 모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봅시다.
- ⊕ 나라와 민족, 복음화된 통일조국,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9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9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9월의 새가족 \*

오부회 박해근 오명순 계애순 배은주 양혜현 김신영 김재준  
김정원 하재봉 이수용 김영란 박길하 원봉이 김석주 서순란  
송순화 허근호 정동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창세기 강해



# 야곱의 서원

(28장 20절 - 22절)

이종운 목사

야곱의 서원은 성경 속의 최초의 서원입니다. 서원에는 자녀를 낳실인도로 구별하겠다고 한 한나(삼상1:11, 민6장, 30장)처럼 좋은 서원이 있는가하면, 입다(삿11:31)처럼 어리석은 서원이 있습니다. 한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서원은 아버지 에 대한 모반 행위가 됨으로 악한 서원이었습니다.

신약에는 바울이 복음전파를 위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 외에는 서원 기도의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서원이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엄숙한 약속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은혜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서원이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지킬 힘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벨 열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큰 감화를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은 신약시대에 산 것이 아니라 서원이 자주 있었던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계시를 받은 장소에 너무 큰 비중을 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요4:23). 또한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했기에 그의 기도에는 진정한 참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을 때 별별 떨었습니다(사6:5).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태도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려는 목적을 바로 알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을 살펴보면 몇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 1. 서원의 초점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으로 이웃의 일을 구합니다(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지막으로 죄용서, 일용할 양식 등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주옵소서, 저것을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주옵소서..." 하며 자칫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 2. 하나님을 의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사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 3.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태도입니다.

형 에서와 팔죽 한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흥정하던 그는 "하나님께서 만약 ~하시면 나도 ~ 하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4. 그의 기도에는 세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1절)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22절)이라고 한 기도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는 기도였습니다. 변화산상의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장막 셋을 짓겠다고 했을 때 구름이 그 광경을 가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한 사건(마17:4-5)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에 앞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셋째, 십일조에 대한 서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예가 있으나 아직 제도화 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야곱은 이 일을 고상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주시

면 많이 바치겠다는 야곱의 욕심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친 물질의 분량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사랑으로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표시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야곱의 흥정에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적절한 것입니까? 혹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자기 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준 것을 다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 순례자 킬링 ✧

## 보람있는 인생

삿군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은 보람만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축복이나 기쁨이 되기 보다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될 뿐이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준 청지기에게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 이를 갈라고 하신 저주의 말씀은 일의 의미도 보람도 모르고 안일주의 기회주의 무사주의에 빠져 눈에 보이는 명분에 매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와 멸시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던져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미와 감사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충성과 희생을 더할수록 일의 보람과 가치는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자.

I. 21세기의 사회적  
특징들을 간추려 보면;

- 1) 획일화, 규격화된 이미지를 대량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던 매스 미디어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탈 획일화, 세분화, 다양한 미디어로 바뀔 것이다.
- 2) 기계의 템포에 맞추는 노동시간에서 인간이 해방되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야간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되며 시간의 사용이 다양화가 될 것이다.
- 3)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소비 수준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여가선용 등 삶의 질을 우선하게 될 것이다.
- 4) 규격화된 대량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개성과 창조성에 부응하는 단기가동과 자동화된 주문생산 체제가 된다. 사회적 현상으로 탈 획일화와 개성화가 추진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게 된다.
- 5) 미래의 조직은 상의 하달적 경영 구조와 관료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팀워크 체제나 공조 체제가 기업과 정부에 확산 될 것이며 공장 기계에 의존하던 생산 시스템이 기술과 정보 체제(Network)로 그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 6) 주 형태가 도시로부터 교외로, 정착성 사회에서 이동성 사회로 바뀔 것이다.
- 7) 전자 공학 시대에서 생물학 시대로 생명 공학이 첨단 분야로 각광받게 된다. 이는 인생과 사회의 모델을 제도적, 기계적 모델이 아닌 유기체적, 공동체적 모델로 이해하는 패러다임(전형, 모형)의 전환을 가져온다.
- 8) 강요된 기술에서(Forced Technology)에서 하이테크(High Tech/ High Touch)로 바뀐다. 또한 기술 세계에서 갈수록 인간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된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인간 본성이 밸런스를 차지한다.
- 9) 노동의 다양화, 전자주택, 노동시간의 단축

# “21세기 교회 교육과 그 대책”

■...이 글은 9월 21일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가을세미나에서 원 호 목사가 한 "21세기 교회교육의 대책"이라는 제하의 강연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

나 격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대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여과 장치를 심어 주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주입식, 획일적인 교육에서,

자발적인, 창의적인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1) 필요를 자극하고 창출함으로, 관심을 끌어내어서 듣게 해야 한다. (눅15:17)
- 2) 다양화, 개성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개개인에게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 3) 직접 참여하는 교육방식이어야 하겠다 (Learn by Participation).
- 4) 모범을 보여야 한다.
- 5) 발견한 진리를 나눌 기회를 줌으로써 창의성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3. 교사와 교육방법이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21세기에 한국사회는 고도의 다양성과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따라서 교회 교육도 기존의 제도와 구조, 조직에 얽매이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창조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동향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리라 예측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죄악성을 고려치않은 낙관론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21세기는 보다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집요한 도전장을 보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 5절에 나타난 말세에 고통하는 징조들이 벌써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교회가 이것을 예상하고 한발 앞서가지 않는다면 심각한 도전에 우왕좌왕하며 우리의 2세들을 잃을 지도 모른다.

좀더 다양하고 첨단인 도구들을 사용한 가운데, 성서 진리의 계시가 성령님의 전폭적인 역사로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에 자리잡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 해야 하겠다.



및, 가족 형태의 복잡화-핵가족, 독신, 아이 없는 생활, 동성결혼, 계약결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며 의학의 발달로 인구가 노령화될 것이다.

## II. 21세기 사회적 특징에 대응하는 교회 교육은 일련의 대책이 필요하다.

### I. 진리에 뿌리 내린 교회 교육이어야 하겠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나” 묻고는(요 18:38) 대답도 듣기 전에 나갔다. 참된 진리에 머물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대변한 사건이다. 인간은 상상 가능하고, 분석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발견된 진리만을 수용할 뿐 무궁무진한 참진리의 영역에는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셨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Thy Word is Truth)” (요17:17). 또한 도마와의 대화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the Truth),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바로 진리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하고,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 시대라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13:8). 온갖 정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보호

■ 사랑부 세례식에 참가하여

#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사랑부에서는  
학습 · 세례식을 가졌다.  
7명의 학습자와 8명의 세례자들은  
주님의 사랑에 함께 울었다.

제 오복(사랑부 교사)

마음 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손과 발, 가슴이 힘든 목. 육신적 장애로 인해 세례를 받는 순간을 온전히 견디기조차 힘든 사랑부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을 향해 끌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내 모습에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회 때마다 모든 순서에 교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주려면 정말 지극한 인내가 필요하부서. 사랑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의 섬김이 더 절절히 감사해지고, 더 닦아가고 싶어진다.

내 완악한 마음 문을 여시고 말과 혀로 밖에 사랑할 줄 모르던 내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세례받은 사랑부 학생들이 진정으로 거듭나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조용히 간구하였다.

# 이미 시작된 비전2000운동

## 유치부 - 다음 주 『새친구 초청잔치』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지나면서 교회와 멀어진 많은 양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이 결실의 계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려고 생각한 유치부 어린이들은 안드레처럼 새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기로 하고, 다음 주일(10월 1일)에 새 친구 초청잔치를 열기로 하였다. 지난 주일과 오늘, 두번에 걸쳐 나누어 가진 초청 카드는 천국잔치로의 초대장이기도 하다.

## 초등부 - 오늘, 축호전도

오래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간 전화와 편지로 지속적인 연락을 해 온 담임선생님과 함께 심방을 가기로 한 것이다.

심방을 마친 후에는 교회 가까이 사는 한 친구의 집을 정하여 '식탁의 교제' 시간을 갖는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는 친구나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친구들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사귄을 통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자신과 다른 환경의 친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 중등부 - 매 주일 노방전도

매 주일 중등부 집회를 마치고 성가대 연습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는 한가지 프로그램이 또 남아있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노방전도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회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먹은 후에는 나아가 운동(전도)하니 영혼이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 2층 예배실 기도실로 24시간 개방

우리교회 예배당 지을 터전이 결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기도의 불길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윤 목사는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교회로서는 관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열기와 비전 2000운동에 즈음하여 2층 예배실을 기도실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 침구류의 반입은 금지하며, 밤 10시 이후 새벽기도회까지는 출입이 통제된다고 한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127:1)고 하셨다.

# 옥합을 깨뜨려

- 아낌없이 바치는 손길들 -

외국에 나가 있는 서울교회 성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회부지가 정해졌다는 꿈을 꾸었어요." 꿈이 아닌 사실이라 했더니 환호성을 질렀다. 그간 모두가 정말 꿈 속에서도 그리던 우리교회 예배당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낭보에 감격찬 성도들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 절제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였다.

한 아기의 어머니로 혼자 살고 계신 어느 여 집사님은 살던 집을 정리하여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일익원을 건축헌금으로 바쳤다고 한다.

얼마 전, 별세하신 김○○ 집사님, 서울교회 새 예배당 지을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유언과 함께 자신이 가진 재산목록 첫 번째인 현금봉투와 금지환을 바치고 가셨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데 지난 한 주간동안에도 옥합을 깨뜨려 바치듯 거액의 재산을 구별하여 드리며 익명을 요하신 분들...

과부의 엽전 두 렷돈을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며 이름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이같은 제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질 우리 예배당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 가슴 인터뷰



새 예배당 이런 모습이었으면 ...

● "기도하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달려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열린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김공숙 / 유년부 교사)

●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크리스찬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준 높은 크리스찬 문화를 성도들 뿐 아니라 지역민과 불신자들까지도 향유하게 한다면 복음전파에도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김영민 / 청년부)

● "예배실 공명이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강단에서 흘러 나오는 말씀이 회중에게 잘 전달되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이 갖추어지길 기대합니다." (박태희 집사 / 찬양대원)

### 교우 동정

\* 차광판·김순희 집사(5교구 평촌 다락방)가 18일(월), 송실대 앞에 『만나 한식 분식 센터』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813 - 4441)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④ 9월 25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기술사회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맹용길 박사)

⑤ 10월 2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신앙과 인성회복 (안병욱 교수)

### 목회자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서울신학대학 신대원생들의 추계 신앙수련회를 오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강화도 신덕기도원에서 인도한다. 한편 26일(화)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이사회에 참석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 2000운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2.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진리에 뿌리를 두고 변화하는 21세기에 대처하는 교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